

야 “헌법질서 회복 첫걸음”... 여 “불법 체포 자행”

여야 정치권 엇갈린 반응

박찬대 “구속해 내란 전모 밝혀야”
김선민 “김건희 신병 확보해야”
국힘 “공수처, 법적책임 물을 것”
권영세 “역사적 비극의 삼중주”

헌정사상 초유의 현직 대통령 체포가 15일 현실화하자, 여야 정치권의 입장은 뚜렷하게 갈렸다.

더불어민주당등 야당은 “헌정질서와 민주주의의 회복과 법치 실현을 위한 첫 걸음”이라고 크게 환영했다.

조국혁신당은 더 나아가 “주술 공동체인 배우자 김건희 씨도 조속히 체포에 나서라”며 수사기관의 신속한 신병 확보를 요구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향해, “민주당의 하청기관으로 전락했다. 불법적 체포영장 집행을 자행했다”며 “정치적·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의원총회에서 “늦었지만 대한민국의 공권력과 정의가 살아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며 “윤석열 체포는 헌정질서와 민주주의의 회복, 법치 실현을 위한 첫걸음”이라고 강조했다.

박 원내대표는 “(공수처가) 윤석열을 구속 수사하여 내란 사태의 전모를 낱알이 밝히고 윤석열의 책임을 엄중하게 물어야 한다”며 “그것이 헌정 질서를 온전히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5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의원총회에서 윤석열 체포 뉴스를 시청하고 있다. **뉴스스**

회복하고 국가 정상화를 이루는 길”이라고 말했다.

당 최고위원들은 별도의 입장문을 냈다.

이들은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오늘 내란세력이 무너뜨린 헌법원칙을 바로 세웠다”며 “오늘이 우리 앞에 놓인 내란 위기를 극복하고, 대한민국이 새로 시작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표는 “잠으로 안타까운 일”이라며 “이제 신속하게 헌정 질서를 회복하고 민생과 경제에 집중할 때”라고 말했다.

조국혁신당은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바로잡을 마지막 기회로 사회 대개혁을 이룰 첫 번째 시작”이라며 “신속하고 주도면밀하게 수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선민 대표 권한대행은 이날 의원총회에서 “수사기관이 신병을 확보했으니 내란의 시간에서 정의구현의 시간이 될 것”이라며 “내란 세력에게 사소한 반격의 빌미라도 주어진 안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공천 개입, 내란 역할 등 수많은 의혹이 김건희 앞에 쌓여 있다”며 “윤의 경제, 정치, 주술공동체인 김건희도 체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황은하 원내대표는 “윤석열에게는 구속 영장이 발부될 것”이라며 “내란의 시간은 이제 끝났고 정의구현의 시간이 도래했다”고 말했다.

허은아 개혁신당 대표는 이날 SNS를 통해 “법치주의는 우리 사회의 기본 원칙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 집행이 시작된 15일 여의도 국회에서 권영세 국민의힘 원내대표 등 지도부가 공수처 규탄 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스**

이라며 “법 앞의 평등, 공정한 절차 이것이 바로 우리가 지켜야 할 가치”라고 밝혔다.

반면, 국민의힘은 “공수처가 불법적 체포영장 집행을 자행했다”며 불편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다.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이날 윤석열 대통령 체포 직후 논평을 통해, “공수처의 불법 집행 과정에서 시민들과 국회의원들도 부상을 당했다고 한다”며 “2차 체포영장에서 형사소송법 제110조, 제111조 조항마저 포함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공수처가 집행을 강행한 것은 군사시설보호법 위반 등 명백한 불법”이라고 주장했다.

신 수석대변인은 “공수처가 관저 출입 승인을 받았다는 거짓 주장을 하며 공문을 위조했다는 의혹까지 제기된 상황은

법치주의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라며 “향후 공수처의 존폐에도 근본적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공수처와 위법한 체포영장을 발부해준 서부지법, 민주당과 내통한 경찰이 만든 ‘역사적 비극의 삼중주’”라며 “공수처, 경찰의 폭력적, 불법적 체포영장집행 행위는 엄중한 법적, 역사적 책임을 피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조기대선이라는 정략적 목적 달성을 위해 법치주의를 뿌리부터 무너뜨린 이 대표와 민주당도 반드시 그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며 “그게 정의이고 국민의힘이 앞장서서 그 정의를 바로 세우겠다”고 강조했다.

서울=김선욱 기자 seonwook.kim@jnilbo.com

민주 “오늘 내란특검법 표결... 與 협조하길”

우원식 의장 “신속하게 처리할 것”

더불어민주당은 15일 국민의힘에 ‘내란특검법(비상계엄특검법)’ 자체 안을 즉각 발의하라며 예고대로 16일 야당안을 본회의의 처리하겠다고 압박했다.

박찬대(사진)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본청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내란특검법은 온 국민이 목격한 범죄를 저지른 범인을 수사하고 처벌하는 법”이라며 “(국민의힘



이질 않는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특검법 처리를 미룰 생각이 추호도 없다는 점을 분명

하게 밝힌다”며 “국민의힘은 사사건건 탄압을 걸지 말고 적극 협조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이 추진하는 특검법은 야당안과 비교해 수사범위와 대상, 규모, 기간이 대폭 축소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외환 혐의 등 수사범위를 놓고 여야 간 입장 차가 여전한 가운데,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최종안을 성안하기 전까지 협상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강유정 원내대변인은 “(국민의힘이) 안을 발의해서 가져오면 민주당안과 나란히 놓고 협상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며 “16일 본회의에서 어떤 안이든 통과시킬 예정이니 (국민의힘은) 그 전에 발의하라”고 촉구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에는 특검법 처리를 위한 본회의 개의를 요청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우 의장을 찾은 자리에서 “본회의를 열어달라고 요청했다”며 16일, 늦어도 17일에는 본회의를 열어야 한다는 입장을 전했다.

이와 관련, 우 의장은 12:3 비상계엄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안을 처리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우 의장은 이날 낮 12시에 국회의장 공

보수석실을 통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집행됐다”며 “우려하던 충돌 없이 법집행이 돼 다행”이라고 말했다.

우 의장은 “국회는 대내외적인 불확실성을 줄이기 위한 적극적인 의원의외교와 민생안정을 위한 ‘국정협의회’의 조속한 가동 등 최선을 다하겠다”며 “여야 간에 논의 중인 특검법도 신속하게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야6당이 발의한 ‘내란·외환특검법’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해 본회의에 부의된 상태다.

서울=김선욱 기자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 봉사실천에 앞장서는 사람들

국제로타리는 1905년에 '초아의 봉사'를 모토로 창설된 최초의 봉사단체입니다. 전 세계 로타리 회원들은 높은 윤리적 기준을 실천하고 문해력 증진, 질병 퇴치, 기아 및 빈곤 감소, 안전한 식수 제공, 모자보건, 경제 및 지역사회 개발 등 인도주의 활동을 통해 세계이해와 평화증진에 이바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꿈꾸는 세상은 다 함께 힘을 모아
지구촌과 지역사회 그리고 우리 자신을 위한 지속력 있는 변화를 실천하는 그런 세상입니다



국제로타리 3710지구 (광주, 전남서)
2024-25년도 총재
진하 백현옥

국제로타리 3710지구는 광주광역시와 전남 서부권 9개 시.군(화순, 나주, 담양, 장성, 영광, 함평, 무안, 목포, 신안)에 있는 90개 클럽을 관리하는 지구로 3,600명의 로타리 회원이 활동하고 있다.



광주광역시 서구 대남대로 448(농성동)
TEL 062-223-3710
FAX 062-223-3738
E-mail ri3710@hanmail.net